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38, 계시록 에 대한 해설, 세션 3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요한계시록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표를 하고 있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배경에 비추어 우리가 읽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여러 주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몇 가지 다른 섹션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장을 백업하고 11장을 보려는 것입니다. 11장은 두 증인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예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그들의 증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읽은 동일한 용, 즉 동일한 짐승이 11장에서 무저갱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저갱은 어떤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 상징이자 악마적인 사악한 존재의 기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짐승이 나오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짐승은 아마도 로마 제국을 상징할 것입니다. 당신이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시록 12장과 13장, 그리고 이제 11장을 읽고 이 일곱 머리 짐승에 대해 읽으면 아마도 그것이 로마 제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2장과 13장이 로마와의 갈등의 진정한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로마와 로마황제를 상징하며, 로마와 황제숭배의 전체 체제를 조장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본질을 설명합니다.

이제 11장에서는 동일한 짐승이 심연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짐승은 아마도 로마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그의 왕국에 반대하려는 로마의

시도를 상징할 것입니다. 이제 그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 즉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두 증인이 일어나서 그들의 증언이 실제로 참되고 참되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이제 다시 질문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배경입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관해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지 않고 둘 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모델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재앙,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이 두 사람은 구약의 두 인물을 기억합니다.

왜 두 개입니까? 아마도 두 명의 증인이 있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규정을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명의 증인이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는 간증의 타당성을 위해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원칙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미래의 언젠가, 결국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 또는 1세기에 전파한 베드로라고 제안하고 식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개인들이 그들의 상징적 가치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이 두 개인은 1세기나 미래의 두 명의 실제 또는 문자 그대로의 개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11장은 주로 이 갈등 속에서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설명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 읽은 갈등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11장에서는 그것의 주요 역할이 고통에 직면해서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과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특히 1세기 로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장에서는 그 속에서도 교회가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부분에서 요한은 교회를 11장의 첫 두 구절에서 실제로 측정되는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전이 문자 그대로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성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바울이 교회와 사람들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성전 이미지를 사용한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팡이 같은 측량을 주며 말하기를 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셨다. 성전과 제단,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전체 그림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깥뜰 곧 성전 바깥뜰은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느니라. 둘 다, 성전이 측량되었다는 사실은 안전함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존하실 것이며, 그들의 증거 가운데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증인은 교회가 세워짐을 상징하여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증언이 타당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시, 11장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로마의 손에 고통을 받거나 타협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달리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입증될 것입니다. 로마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은 최종 결정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의 백성을 변호하여 그 갈등과 고난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들의 고난이 참으로 옳고 진실되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11장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두 개인은 특정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체 장은 1세기 로마의 맥락에서 그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로마에 대한 충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타협할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항할 가치가 있나요? 11장은 예언하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결국에는 옳았다는 것이 밝혀지는 두 개인에 대한 상징적 비전으로 그러한 질문에 답합니다. 두 개의 구절을 더 살펴보세요.

그 중 하나는 아마도 자주 확인되는 구절이거나 요한계시록이 대부분의 시간에 확인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이며 천년왕국 또는 천년 통치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 섹션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John은 미래의 일련의 사건을 예측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적대적인 이교도 환경의 맥락에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독자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방식 안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시록, 과거주의자, 미래주의자, 이상주의자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때 그 안에 다양성이 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접근이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타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전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는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저갱이나 심연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소나 위치가 아니라 악과 혼돈과 악마,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것을 보고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두었습니다.

천년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후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12장과 13장, 11장에 보면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제 천년이라는 시간적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논쟁은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하여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합니까? 이 천년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직 아님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분은 역사를 정점에 이르게 하고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천년 기간이 그리스도의 오심, 즉 재림과 관련하여 언제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전에 일어나나요, 그 후에 일어나나요,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때에 일어나나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의 노트에서 전천년기, 후천년기,

전천년기라고 부르는 다양한 입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나는 그 직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직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틀어 이것이 특정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거리이자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제가 이 섹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천년왕국 이전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천년설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이 일어나며, 천년왕국 전에 즉 전천년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전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돌아오시고 나서 친히 이 천년왕국, 즉 이 1,000년 기간을 시작하시고 세우십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정확히 1,000년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특정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며, 이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창조물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정교한 시나리오를 자주 구성합니다. ,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천년설에서 가능한 한 가지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0년은 악이 지배하는 시대와 그 다음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의 일종의 전환기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일종의 중간 시간, 즉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 사이의 과도기입니다.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두 관점 모두에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전천년왕국이라고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구약의 성취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1,000년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더 상징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전히 일정 기간을 의미하지만 주로 상징적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로 알려져 있으며, 접두사 post-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은 천년기 이후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난다.

즉, 천년왕국은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즉 재림하시기 전의 기간이다. 기본적으로 후천년설에 따르면, 천년왕국은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며, 이 황금시대에서 의가 승리하고 지배하는 이 황금시대가 마지막에 도래한다는 것이다.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역사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새천년이라 불리는 이 황금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일단 그것이 끝나면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기간 후에 이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그런 다음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역사 속에서 도래할 이런 황금시대를 시작하는 책임이 있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후 천년설. 그 견해는 첫 번째 견해만큼 흔하지도 않고 다음 견해인 무천년설만큼 흔하지도 않습니다. 무천년설의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 무천년설이 잘못된 명칭임을 암시합니다.

접두사 am-은 아니오, 천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매우 다르게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기간에 일어날 물리적인 지상 천년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교회 역사 전체 기간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바울의 구절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것이 단지 존이 말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이 천년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은 무천년설에 따르면 천년은 땅에서의 물리적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 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은 천년왕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역사를 통틀어 이러한 견해는 천년왕국의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즉,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후천년기, 교회는 설교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천년왕국을 세우거나 시작합니다. 이 황금시대,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 때가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또는 무천년설, 즉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의 특정 시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세기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전체 시대를 의미하며, 그 전체 기간은 천년왕국으로, 상징적으로 천년으로 묘사됩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주요 관점입니다.

나는 천년왕국이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은 무엇보다도 신약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곳이 천년 기간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소 비밀스럽게 언급됩니다.

그 천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 어디서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통치일 수도 있고, 하늘의 통치일 수도 있고, 땅의 통치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20장의 간결한 성격에 정말 놀랐습니다. 즉, 공백이 많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년왕국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누가 있는지, 출산이 있을 것인지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약속이 성취될 때입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21장과 22장에 비해 매우 간략합니다. 제 생각에는 천년을 가리키는 천년왕국은 아마도 전혀 기간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입증과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일 뿐, 특정 기간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땅에 있는 것인가, 하늘에 있는 것인가,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는 곳인가, 아니면 이곳이 이스라엘이 약속을 모두 성취하는 곳인가? 우리가 묻고 싶은 모든 질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특정 기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상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참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밀레니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질문 중 일부는 아마도 텍스트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너무 적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악이 멸절되고, 악이 억제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입증되고 보상받고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승리하는 천년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밀레니엄의 의미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천년왕국은 단순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 장 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한 일종의 잠시 쉬어가는 시점 일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면 디킨스의 소설 요한계시록은 두 도시의 이야기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이것을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창녀로 묘사하는 한 여자를 묘사합니다. 이 여자는 세상을 유혹할 수 있고 꽤 매력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본질적으로 악마적이고 사탄적이고 악한 것으로 식별한 흉측한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다시 한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1세기 독자라면 누구나 읽고 짐승을 탄 이 여자를 로마 제국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1세기 로마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1세기 독자 중 어느 누구도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면서 짐승을 탄 이 여자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8화에서 그녀는 파멸한다.

로마는 오만함, 허세, 그리고 로마의 부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자신을 내세웠다는 사실로 인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악하고 악한 나라들과 제국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다시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멸망하여 무(無)로 전락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부분의 중간인 18장 4절에서 요한의 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녀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갈라지게 됩니다.

로마는 멸망할 것이다. 그녀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로마의 통치와 이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녀에게서 나오세요. 그녀와 헤어져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에서 나와 분리되려면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떠나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이 오만하고 허식적이고 부패한 이념과 체제와 악마적인 체제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 그러면 John은 갈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번에도 새 예루살렘의 환상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 배경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거의 모든 구절, 적어도 처음 다섯 구절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한 주석에서는 요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구약성경의 언급을 모두 빼면 두세 절 정도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구약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 창조에 대한 언급, 새 예루살렘, 새 언약, 도시의 측량에 대한 언급. 요한은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등의 모든 위대한 예언서와 기타 예언서, 그리고 일부 서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하나의 장엄한 피날레, 하나의 장대한 비전으로 모아 이 새 예루살렘, 이 비전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희망과 기대의 궁극적인 성취임을 보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예언 본문과 구약 본문의 모든 가닥을 취하여 로마 통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비전으로 함께 엮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식별에 관한 한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John이 그가 제시한 측정치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의 실제 도시를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신에, 다시 요한은 그의 환상 속에서 한 도시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상징적 가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요한은 주로 현재 새 땅에 살고 있는 완전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아마도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현대의 묘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흥미롭고 매력적이지만 아마도 약간은 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건축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대신 John은 사람들 자신을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성전과 건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한은 온전한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새 예루살렘, 도시로 묘사합니다. 또,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측량, 즉 144큐빗이나 모든 측량도 12의 배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2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가 묘사한 도시가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새 창조 안에 있는 완전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사도를 상징하는 12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시의 건축 돌과 건축적 특징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제 하나의 완전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은 구약성서의 모든 이미지를 끌어와서 그것을 절정의 환상으로 통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로 어떤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 자신을 언급합니다.

새 창조에는 도시나 물리적인 도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요한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로 실제 도시가 아닌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성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이루어진 온전케 되고 완결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본문은 이사야서, 에스겔 및 기타 예언 문헌의 본문에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시 요한은 예언적 전통의 마지막 부분에 글을 쓰고 있으며, 모든 약속을 한데 모아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비전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그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 비전이 로마와 동일시되는 바벨론 비전의 대응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로마를 자주 부르는데, 1세기 이 시기에는 바벨론으로 자주 불렀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로마의 암호명인 바벨론을 언급한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로마가 그들의 오만함과 사악함으로 인해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John은 이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로마를 떠날 것이라면, 그들이 로마를 떠날 것이라면... 육체적으로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와의 연합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충실을 유지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따르면, 만일 그들이 로마의

부패한 이데올로기와 부에 굴복하고 연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충성을 유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갈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창조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운명이 흥미롭게도 천국이 아니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제가 전에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지만 나의 궁극적인 운명은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구름 속에 떠다니는 일시적인 영적 존재에 대한 생각은 성경적인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더 영지주의처럼 들립니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학기 초에 영지주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즉,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 영적인 것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서 구원은 땅에서, 땅과 육신의 물리적 감옥에서 벗어나 영적인 존재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운명에 대한 성경적 비전은 우리가 시작한 곳, 즉 지상에서 우리를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창세기 1장과 2장의 유사점에 주목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새 하늘 과 새 땅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에덴동산과 새예루살렘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처음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될 창조물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 창조 안에서 완전해지고 완결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가 새 창조와 많이 다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와 첫 창조 사이에 불연속성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연속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물리적인 지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운명은 육신을 벗어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지루한 존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운명은 매우 육체적인 운명입니다. 비록 죄와 죽음의 모든 영향이 제거된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운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가 제공하는 것, 이 세상의 국가와 제국이 제공하는 것을 버리면, 그들에게는 대안이 될 세계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경에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노트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와 노트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던 많은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제 역시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미 새 창조의 배경이 구약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창조와 에덴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인류는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동산에 배치되었습니다. 땅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존재에 적합한 환경,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 이제 줄거리가 진행됨에 따라 죄가 좌절되고 인류가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땅이나 창조라는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으로 계속됩니다.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축복의 일부, 즉 언약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실 땅으로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단지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땅, 즉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실 장소로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에덴동산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죄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 땅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실 축복의 땅,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에게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이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류를 향한 그분의 의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약의 역사를 기억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언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물리적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으로 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사야 65장에서 이러한 예언적 본문 중 하나인 요한 자신이 암시한 예언적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으로의 귀환이 좀 더 확장되고 더욱 예언적인 내용을 띠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일종의 종말론적이거나 심지어 우주적인 비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를 언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삼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임이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고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새 하늘 ,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요한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일의 성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땅, 즉 축복의 장소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살고 거하실 땅을 주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의도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기대로 끝을 맺습니다. 신약에서는 새 창조의 약속이 두 단계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돌아왔지만 아직 다시는 아닙니다.

땅의 약속인 새 창조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실제로 이사야 65장을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언어는 바로 이사야서 65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인류가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이사야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물론 아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 차원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 요한은 내가 새 하늘 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구속사의 목표가 된다.

즉,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환경과 땅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 그들이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축복의 처소를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요한의 환상에서 성취된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관한 책 그 이상입니다. 종말론이지만 ,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정점에 이르게 하시고 그분의 원대한 목적과 뜻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디에서 발견되든 세상 제도와 제도의 가식, 오만, 반경건함을 폭로하는 책임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라는 요청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예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계시록은 우리 사회와 하나님 위에 자리잡은 모든 기관, 사람, 제국의 모든 가식과 거짓 주장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에 저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선지자적 증언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른 어떤 인간, 어떤 기관도 우리의 숭배와 충성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을 통한 우리의 여정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표를 하고 있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